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 VIP 리포트

■ 사업서비스업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목 차

---

## ■ 사업서비스업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사업서비스업 현황 국제 비교 .....	2
3. 사업서비스업 부진 원인 .....	5
4. 시사점 .....	9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백   흥   기   산업전략본부장 (2072-6228, hkback@hri.co.kr)

신성장연구실    :   안   중   기   선   임   연   구   원 (2072-6242, joonggiahn@hri.co.kr)

## Executive Summary

### <요 약>

#### ■ 개 요

지식기반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사업서비스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사업서비스는 연구개발·디자인·마케팅 등 가치사슬에서 제조 전후 단계에 속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주로 다른 기업체의 경영 효율 혹은 전문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제조 단계에서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지식기반 경제에서 제조 부문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과거에는 저부가가치로 여겨졌던 제조 전후 단계의 사업서비스 영역에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된다.

#### ■ 사업서비스업 현황 국제 비교

국내 사업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먼저 사업서비스업의 경제적 위상이 낮다. 부가가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7%대에서 정체 상태이다. 반면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사업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은 10%를 상회한다.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보다 사업시설관리·지원 서비스업의 생산성 감소가 뚜렷하다. 후자의 노동생산성은 2010년 대비 10% 이상 하락하였다. 또한 2014년 기준 한국 사업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약 40% 수준에 불과하다.

대외경쟁력이 취약하다. 사업서비스 부문의 적자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2016년 기준 서비스수지 적자의 절반이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했다. 무역특화지수로 평가한 대외경쟁력도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 ■ 사업서비스업 부진 원인

사업서비스는 여러 이질적인 분야를 포괄하는 만큼 부진 원인도 다양하다. 우선 서비스 수요자인 기업들의 조직 개방성이 부족하다. 경비, 청소 등 단순 업무는 외부위탁 비율이 높으나, 연구개발, 디자인 등 전문적 기능은 외부자원 활용이 미흡하다.

사업서비스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사업서비스업 종사자는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다. 예컨대 디자인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저임금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이 지적된다. 그리고 사업서비스 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가 미진하다.

진입규제로 인해 경쟁이 저해되고 있다. 전문서비스 영역의 진입규제는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높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최근 들어 변호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변호사 일인당 인구를 기준으로 미국 등 선진국과의 격차가 여전하다.

R&D 투자가 미흡하다. 한국의 사업서비스업 R&D 투자는 규모나 비중 모든 면에서 주요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특히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분야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투자 부족이 뚜렷하다.

#### ■ 시사점

**첫째**, 외부의 전문적인 사업서비스 기업을 혁신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사업서비스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산업으로서 사업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출발점이다. **셋째**, 전문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산업 보호가 아닌 성장의 관점에서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사업서비스업에 대한 R&D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 연구개발서비스와 같이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시설물 관리 등 저부가가치 사업서비스는 ICT기술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1. 개요

○ 지식기반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 제조업의 생산성 제고가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서비스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사업서비스는 다른 기업체의 경영 효율 혹은 전문성을 제고하는 업무를 통칭

- 사업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은 다른 기업체를 위하여 기술 및 과학적 업무와 일상적 업무를 계약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sup>1)</sup>
- 연구개발, 법률·회계, 디자인 등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과 청소, 경비 등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시설 관리·지원 서비스업으로 구분

- 지식기반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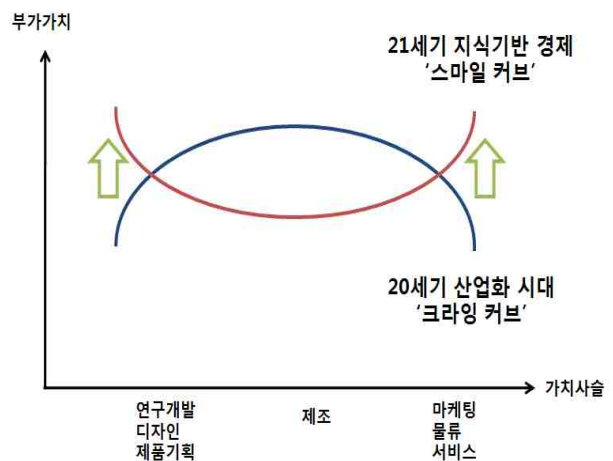
- 산업화 시대에는 제조 단계에서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창출(크라잉 커브)되었으나,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제조 전후 단계에서 고부가가치가 창출(스마일 커브)<sup>2)</sup>
- 이에 속하는 연구개발·디자인·기획·마케팅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법률·컨설팅 서비스 등은 대표적인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함

○ 사업서비스업의 현황 및 부진 원인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사업서비스업 분류 >

	내 용
전문·과학·기술	- 연구개발활동을 주요 영업활동으로 하는 연구개발업 - 법률, 회계, 광고 등 전문 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등 과학기술 서비스업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지원	- 청소 관리, 소독, 방제 서비스 등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고용알선, 인력공급, 경비, 경호, 보안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 스마일 커브와 크라잉 커브 >



자료 : 통계청.

1) 통계청 표준산업분류(KSIC-8)의 사업서비스업 정의 참조.

2) 스마일 커브의 개념은 대만 컴퓨터 회사인 Acer의 창업자인 Stan Shih가 최초로 소개했으며, 이후 경영학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2. 사업서비스업 현황 국제 비교

○ (부가가치) 사업서비스업의 경제적 위상은 정체되어 있고, 주요국 중에서 최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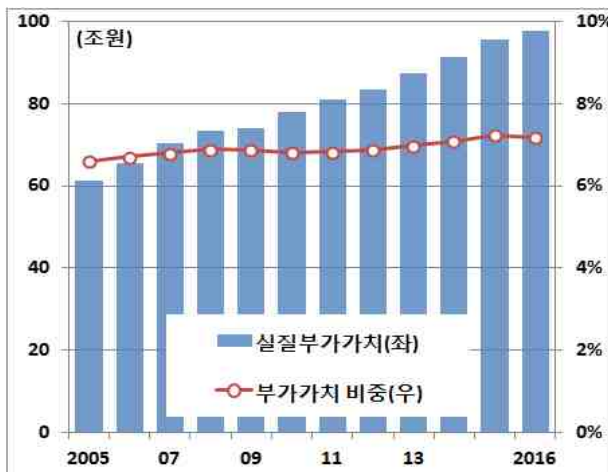
- 사업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거의 정체 상태

- 사업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005년 61.2조원에서 2016년 97.7조원으로 연평균 4.3%씩 증가
- 사업서비스 중에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은 70.2%, 사업지원서비스의 비중은 29.8%(2016년 기준)
- 그러나 총부가가치 대비 사업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 못함(2016년 기준 7.2%)

-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사업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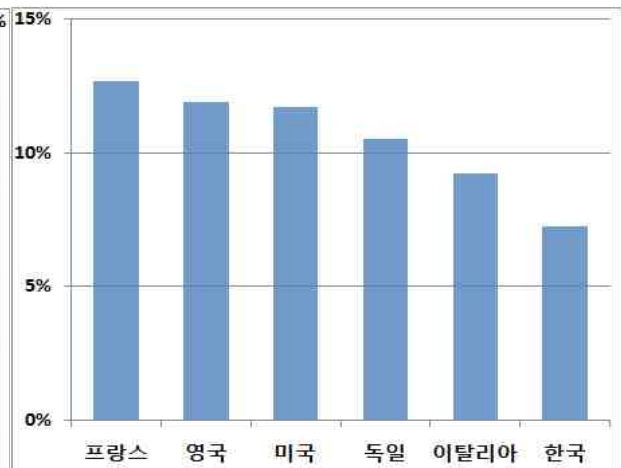
- 주요국 중에서 프랑스(12.7%)의 사업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어서 영국(11.9%), 미국(11.7%), 독일(10.5%), 이탈리아(9.2%) 순서
- 한국의 부가가치 비중은 7.3%<sup>3)</sup>에 머물러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음(전문·과학·기술 서비스 4.9%, 사업지원서비스 2.4%로 두 개의 세부산업 모두 주요국 중 최하위)

< 사업서비스업 부가가치 추이 >



자료 : 한국은행(2016년은 잠정치).  
주 :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을 의미.

< 주요국의 사업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



자료 : OECD.  
주 1) 실질부가가치, 2013년 기준  
2)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을 의미  
3) 일본 통계는 OECD에서 미제공.

3)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2013년 기준 7.0%임. 한국은행의 2013년 사업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는 87.2조원(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61.3조원, 사업시설관리/지원 서비스업 25.9조원)이고, OECD통계에 따르면 90.7조원(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61.3조원, 사업시설관리/지원 서비스업 29.4조원)으로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 부문에서 차이가 발생.

○ (생산성) 사업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으며,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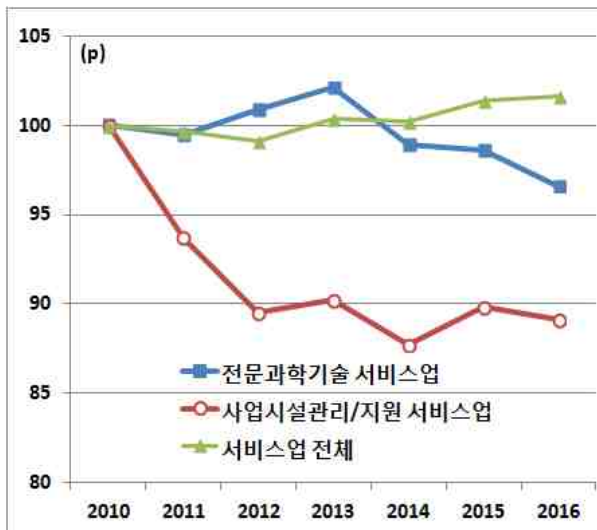
- 최근 들어 사업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하락하고 있음

- 서비스업 전체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지수는 정체 상태에 있다가 최근 소폭 상승했으나, 사업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0년 100을 기준으로 2013년 102.1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2016년 96.6)
- 사업시설관리/지원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0년 100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기준 89.1에 머물고 있음

- 한국의 사업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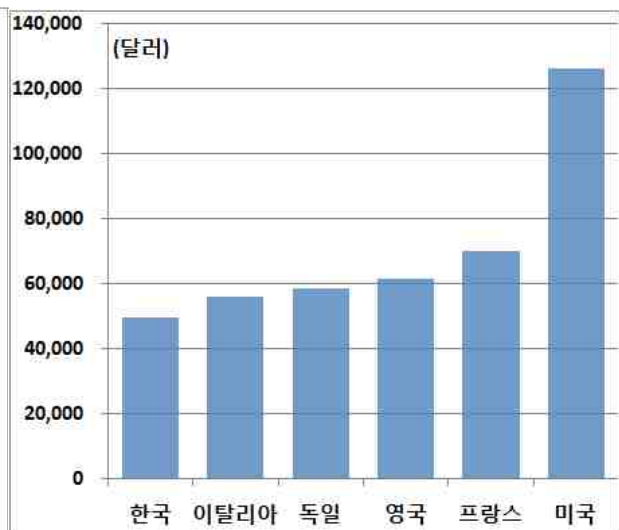
- 미국의 사업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126,000달러로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으며, 이어서 프랑스(70,000달러), 영국(62,000달러), 독일(59,000달러) 순서
- 한국의 사업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49,000달러로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으며, 생산성이 가장 높은 미국의 39.0%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사업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지수 추이 >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통계DB.  
 주 1) 2010년 100 기준  
 2) 불변 GDP지수/노동투입량.

< 주요국의 사업서비스업 노동생산성 >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통계DB.  
 주 1) PPP가 적용된 달러 기준(2014년)  
 2) 취업자당 실질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3) 일본 통계는 OECD에서 미제공.

○ (수출입) 사업서비스는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중이고, 대외경쟁력도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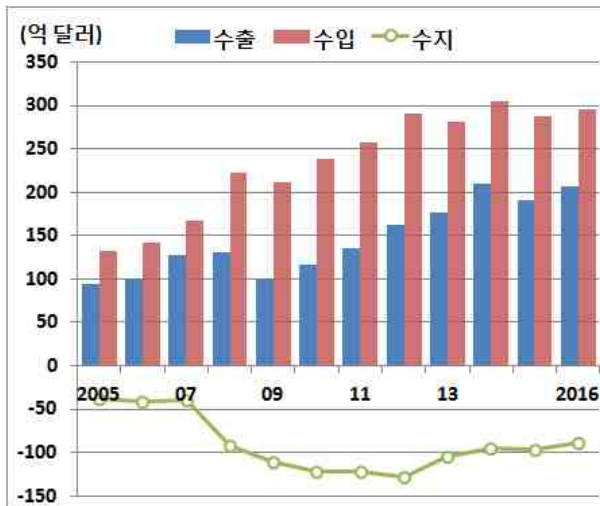
- 사업서비스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

- 사업서비스 수출은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4년 209.7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정체 상태
-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던 수입도 2012년 290.7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음
- 2005년 38.1억 달러였던 적자 규모는 2012년 127.1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6년 기준 88.7억 달러 수준
- 사업서비스 부문의 적자는 서비스 수지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2016년 기준 서비스 수지 적자의 절반이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발생<sup>4)</sup>

- 사업서비스의 대외경쟁력은 일본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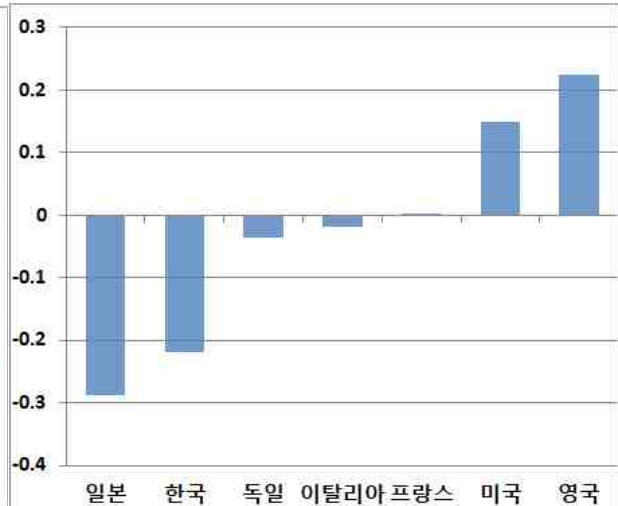
- 무역특화지수 $(\frac{\text{수출}-\text{수입}}{\text{수출}+\text{수입}})$ 로 사업서비스의 대외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주요국 중 영국(0.22)과 미국(0.15)의 경쟁력이 우수
- 한국(-0.22)과 일본(-0.29)의 사업서비스 대외경쟁력은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음<sup>5)</sup>

< 사업서비스 수출입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주요국의 사업서비스 무역특화지수 >



자료 : WTO(2015년 기준).

- 주 1) 무역특화지수 =  $(\frac{\text{수출}-\text{수입}}{\text{수출}+\text{수입}})$   
 2) 값이 클수록 대외경쟁력이 높다고 평가.

4) 2012~2014년에는 사업서비스 부문 적자가 서비스 수지 적자를 상회했고, 2015년에는 서비스 수지 적자의 65%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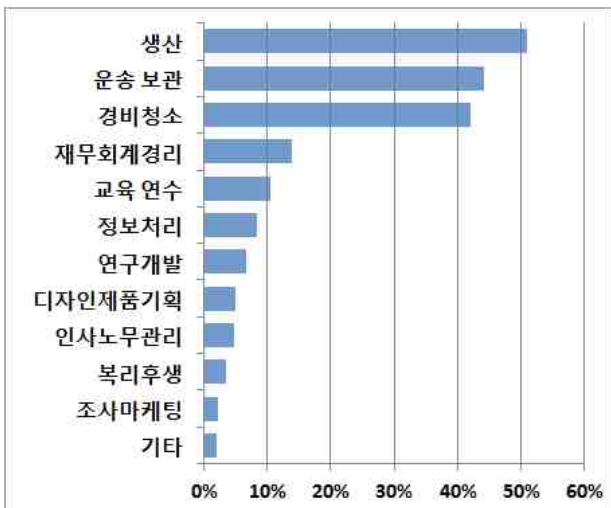
5) 한국은행 통계(수출 190.6억 달러, 수입 286.8억 달러)로 무역특화지수를 계산하면 -0.20임. 한편 WTO 통계(수출 191.6억 달러, 수입 299.8억 달러)로 계산하면 -0.22임.



### 3. 사업서비스업 부진 원인

- (기업의 개방성 부족)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구개발, 디자인·기획 등 전문적인 사업서비스를 수행할 때 외부자원 활용이 미흡
  - 사업서비스 중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등 전문적 업무의 외부위탁 비율은 낮고, 단순 업무의 외부위탁 비율이 높음
    - 제조업체들은 효율적인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단순 기능의 외부화를 활발히 진행 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등의 외부화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견지
    - 사업서비스 중 사업시설관리/지원 서비스에 속하는 경비·청소 업무의 외부위탁 비율은 42.1% 수준
    - 연구개발, 디자인·제품기획, 조사마케팅 등 전문적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외 부위탁 비율은 각각 6.6%, 5.1%, 2.3%에 머물고 있음
  - 기업들은 혁신활동 과정에서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의 민간 서비스업체와의 협력보다 공급·수요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선호
    - 제조업체들은 혁신활동(제품혁신, 공정혁신) 수행 과정에서 주로 수요기업 및 고 객, 공급업체, 대학·공공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음
    - 다양한 협력파트너 중에서 컨설팅, 커머셜랩 등 민간 서비스업체와의 협력 비율 (16.2%)이 가장 낮음

< 제조업의 분야별 외부위탁 비율 >



자료 : 통계청.  
주 : 제조업체 중 각 분야의 외부위탁 비율을 의미함.

< 혁신활동 협력 파트너 >

유형	비율(%)
회사 계열사	19.7
공급업체	38.2
민간 수요기업 및 고객	45.5
공공 수요기업 및 고객	19.8
동일산업 내 경쟁사 및 타기업	28.3
민간 서비스업체 (컨설팅, 커머셜랩)	16.2
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	40.0
정부·공공 연구기관	35.6

자료 : 한국기업혁신조사 2014.  
주 :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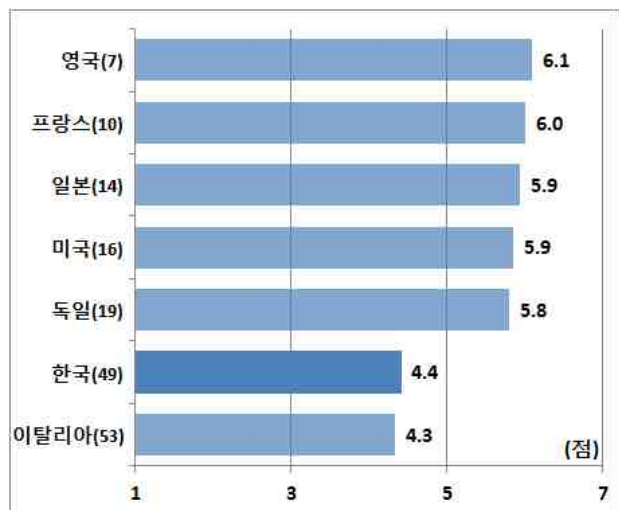
- (사업서비스 가치 저평가) 사업서비스 종사자는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서비스에 대한 재산권 보호 정도가 미약
- 디자인 등 사업서비스업 종사자는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편
  - 디자인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저임금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30.8%)이 지적되고 있음
  - 또한 디자인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공급의 부족(15.8%)은 심화
  - 이는 디자인산업 종사자들이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 연구개발 성과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정도가 주요국에 비해 미흡
  - 사업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적재산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필요하지만, 디자인, 시장조사, 컨설팅,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
  -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는 4.4점(세계 49위)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5.0점(세계 26위)인 것을 고려할 때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는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 디자인산업 육성·발전 장애 요인 >

요인	비율(%)
저임금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30.8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	21.1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인력 공급 부족	15.8
사업체 규모	12.8
추가적인 용역 요구	9.2
재무 운용 능력 부족	4.0
제도 및 규격	3.8
기타	0.9
없음/모름/무응답	1.6

자료 :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2015.  
 주 : 1순위 비율을 의미.

<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 >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16-2017).  
 주 1) 7점 만점 기준  
 2) 괄호 안은 세계 138개국 중 순위.

- (높은 진입장벽) 법률·회계 등 전문서비스의 경우 OECD 평균보다 진입규제가 높으며, 이로 인해 경쟁이 저해
  - 한국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사업서비스 중 전문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가 전반적으로 높음
    - 회계·법률·건축·엔지니어링 분야의 진입규제는 2008년과 2013년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OECD 평균을 상회
    - 한국은 전문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영국과 미국보다 진입규제가 강하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일본보다도 높음
    - 한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전문서비스 진입규제는 한국보다 높음
  - 전문서비스 중에서 법률서비스의 경우, 한국의 변호사 일인당 인구는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되면서 변호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변호사 일인당 인구 측면에서 주요국과의 격차는 여전함
    - 미국의 변호사 일인당 인구는 약 250명, 영국은 약 450명, 독일은 약 500명인 반면 한국은 약 2,770명 수준에 이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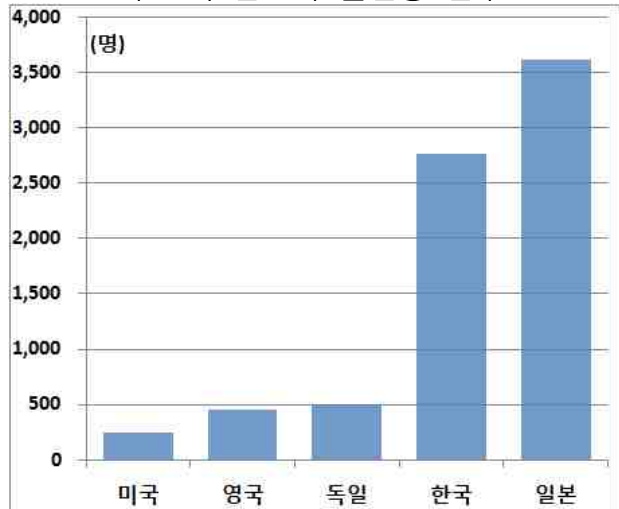
< 주요국 전문서비스 진입규제 >

	회계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08	'13	'08	'13	'08	'13	'08	'13
프랑스	4.2	4.2	4.1	4.1	4.2	4.1	0.0	0.0
독일	4.1	4.1	4.0	4.0	3.3	3.3	1.6	1.4
이탈리아	4.0	4.2	4.1	4.0	3.9	3.9	3.9	3.9
일본	3.8	3.8	3.5	3.7	1.6	1.6	1.9	1.9
한국	4.1	4.0	3.7	4.0	2.7	2.7	1.5	1.5
영국	3.5	3.5	0.8	0.8	1.5	1.5	0.0	0.0
미국	1.8	-	2.9	-	1.2	-	1.3	-
OECD 평균 <sup>6)</sup>	3.4	3.5	3.7	3.8	2.5	2.6	2.0	2.1

자료 : OECD.

-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규제가 강함
- 2) 6점 만점 기준
- 3) OECD는 2013년 미국 통계는 제시하고 있지 않음
- 4) OECD 33개국 평균을 의미함.

< 주요국 변호사 일인당 인구 >



자료: 서울지방변호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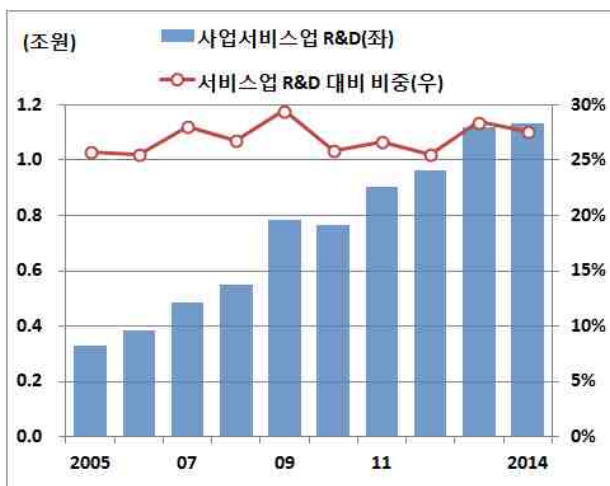
- 주 1) 독일, 한국, 일본 2014년 기준
- 2) 미국 2013년, 영국 2012년 기준.

6) OECD는 규제와 관련해 34개 회원국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2008년에는 슬로베니아, 2013년에는 미국 통계가 미제공. 미국과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32개국의 평균은 2008년 회계 3.5, 법률 3.7, 건축 2.5, 엔지니어링 2.1이고, 2013년 회계 3.5, 법률 3.8, 건축 2.5, 엔지니어링 2.0임.

- (R&D 투자 미흡) 사업서비스업에 대한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국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 사업서비스업 R&D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음
  - 사업서비스업 R&D 투자는 2005년 약 3,300억 원에서 2014년 약 1조 1,300억 원으로 연평균 14.8%씩 지속적으로 증가
  - 전체 서비스업 R&D 규모는 약 4조 1,200억 원이며, 그중에서 정보·통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액이 2조 1,400억 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 순위가 사업서비스업임
  - 서비스업 R&D에서 사업서비스업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25~30% 사이에서 정체되어 있음
- 사업서비스업과 그 세부산업의 R&D를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규모나 비중 모든 면에서 최하위권에 속함
  - 한국의 사업서비스 R&D 투자는 절대 규모 및 서비스업 R&D 대비 비중 측면에서 주요국에 비해서 부진
  - 특히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R&D 투자와 비중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국내 사업서비스업 R&D 투자 추이 > < 주요국의 사업서비스업 R&D 규모(비중) >

(단위: 억 달러, %)



	주요국의 사업서비스업 R&D 규모(비중)		
	사업서비스	전문·과학·기술	연구개발
미국	218.1 (22.6)	217.5 (22.6)	142.0 (14.7)
프랑스	100.2 (60.2)	97.8 (58.8)	42.1 (25.3)
영국	96.2 (62.5)	92.2 (60.0)	69.6 (45.2)
일본	66.8 (55.0)	66.3 (54.6)	59.4 (48.9)
독일	40.7 (45.7)	40.3 (45.3)	21.2 (23.8)
이탈리아	13.6 (33.7)	13.5 (33.5)	9.0 (22.4)
한국	13.0 (28.4)	12.1 (26.4)	4.1 (9.0)

자료 : OECD.

주 : 기업 R&D 투자 기준.

자료 : OECD.

주 1) 기업 R&D 투자, 명목PPP 달러, 2013년 기준  
 2) 괄호 안은 서비스업 R&D 대비 비중을 의미.

#### 4. 시사점

- 사업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규제 완화, 연구 개발 투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 첫째, 외부의 전문적인 사업서비스 기업을 혁신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활동을 강화하면, 조직 내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
  - 국내 기업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 배타적이기 때문에 개방형 혁신 활동을 통해 조직 내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폐쇄적 조직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음
  - 기업들이 디자인, 제품기획, 연구개발 등 전문적 업무에 외부 전문가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 및 세제지원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
- 둘째, 산업으로서 사업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강화
  - 사업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는 사업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결과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때 가능
  - 이를 위해 디자인, 컨설팅 등 무형의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사업서비스 기업들의 투자 의욕 제고 → 종사자들의 임금 향상 → 우수 인재 유입 확대 → 경쟁력 향상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음
- 셋째, 전문서비스와 관련된 진입 및 행위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
  - 법률·회계 등 전문서비스의 경우, 대부분의 진입 규제가 산업의 성장이 아닌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다른 분야와의 융합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문서비스도 타 분야와의 동업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업종 간의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 또한 광고 등 마케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

양한 수단을 허용

- 넷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사업서비스업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 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 한국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높으므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함
  - 연구개발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 등 제도적 지원 강화
  - 시설물 관리, 환경미화, 경비 등은 전통적으로 저생산성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ICT기술과 접목하면 스마트 빌딩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가능

안중기 선임 연구원 (2072-6242, joonggiahn@hri.co.kr)